



제약바이오 Analyst 허혜민 hyemin@kiwoom.com

## 티움바이오 (321550)

### Corp. Day 후기: 개선되는 펀더멘털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주가

#### ◎ 혈우병 치료제 TU7710 1a상 증으로 오는 6/24일 중간 결과 발표 예정

- >> 혈우병에서 80%를 차지하는 A형 혈우병 대표적인 치료제로 노보 노디스크의 노보세븐('23년 매출액 \$1.1bn)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반감기가 2시간으로 짧아 불편. 동사의 TU7710은 동물실험에서 노보세븐 대비 반감기 6~7배 길게 나타나, 인체 임상에서도 긴 반감기를 기대. 오는 6/24일 국제혈전지혈학회에서 반감기 확인 가능.
- >> 동사는 앱스틸라 개발 및 FDA 승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혈우병 임상 성공 확률이 25.3%로 높다는 장점이 있음.(vs 전체 평균 적응증 7.9%) 올해 하반기 유럽 1b상 진입 예정.

#### ◎ 경구용 면역항암제 TU2218(TGF-beta/VEGF) 하반기 고용량 환자 수 증가된 병용 1b상 탑라인 도출

- >> 고형암 환자 대상 투약 중인 12명의 1b상 중간결과가 ASCO2024에서 공개. 저용량 3명, 중간 용량 3명, 고용량 6명으로 부분반응 2명 모두 고용량(195mg)에서 확인됨. 전체 ORR은 16.7%이나 고용량 효능 평가 가능한 환자 5명 중 2명 부분 반응으로 고용량에서 ORR은 40%. 안전성 특이사항 없었음. (3등급 이상 부작용 발진 1명 발생)
- >> 하반기 탑 라인 데이터 도출 예정. 고용량 투여 환자가 기존 6명에서 총 12명으로 증가된 결과 확인 가능. 하반기에는 고용량 투약 환자 수 증가로 추가 반응 환자 도출을 기대. 하반기 3개 적응증(두경부암, 담도암, 대장암)으로 2상 키트루다와 투약 시작 계획.

#### ◎ 자국내막증 치료제 Merigolix, 북미/남미/일본 등 높아지는 판권 계약 가능성 대비 주가 미반영

- >> 2a상 결과, 용량 의존적으로 통증 개선 확인. 안전성에서도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해 Best in class 가능성 확인.
- >> 국내 판권은 대원제약 보유. 중국은 한소제약에 기술 이전. 나머지 지역에 대한 판권 동사가 보유해 기술 이전 가능하며, 최근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장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은 파이프라인임.
- >> '19년 상장 당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783억원으로 현재 시가총액 1,759억원 수준에 불과. 2건의 파이프라인이 올해 인체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하는 등의 임상 진척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하반기 추가 데이터 발표와 메리골릭스의 기술 이전도 기대되는 만큼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현금 및 메자닌 상황:

현재 현금 수준은 270억원대이며 연간 CASH BURN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자금 조달 가능성 낮으며, 기술 이전에 성공한다면 계약금 유입 또한 기대. 전환사채의 2회 발행 중 1회차는 대부분 상환. 2회차(185억원)은 올해 10월부터 주식 전환 가능. CPS 보통주는 다 전환되었고, 우선주 잔량 약 30만주.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4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